2.3 전북의 종교문화유산 활용 사업[44)]

가. 종교문화시설 건립

❑ 건립 현황

- 전북에서 종교문화시설이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음. 2020년에는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2021년에는 선운사 불교체험관, 불교세계평화 명상센터,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 천주교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이 건립됨
- 2022년에는 진안 마이산 전통문화체험관,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군산 선교역사관이 건립 중이며, 모두 2024년이면 완공될 예정임
- 2016년부터 지금까지 군산, 익산, 진안, 전주, 고창의 5개 지역에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등에 관한 역사관, 기념관, 체험관, 명상센터 건립이 추진되었고, 일부는 완료되었음. 건립에 소요된 총 예산은 79,770백만원임

〈표 23〉 전북의 종교문화시설 건립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구암동 일원)	2022~ 2024 (3년)	• 부지 784㎡ • 건축연면적 1,394㎡ • 기념탑 조성, 선교 역사관 건립 등	6,080	1,824 (30%)	912 (15%)	2,128 (35%)	1,216 (20%)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건립 (나바위성당 일원)	2022~ 2024 (3년)	• 부지 4,479㎡ • 건축연면적 2,300㎡ • 체험관, 쉼터조성, 순례길 정비 등	10,000	3,000 (30%)	1,050 (10.5%)	2,450 (24.5%)	3,500 (35%)
진안 마이산 전통문화체험 전시관 건립 (금당사 사찰 내)	2022~ 2024 (3년)	• 부지 7,875㎡ • 건축연면적 1,497.5㎡ • 체험관, 전시실 등	8,000	2,400 (30%)	1,440 (18%)	3,360 (42%)	800 (10%)
천주교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건립 (치명자성지 주차장)	2016~ 2021 (6년)	• 부지 48,283㎡ • 건축연면적 9,877.2㎡ • 복합문화관, 생태학습장 등	29,690	8,907 (30%)	5,195.75 (17.5%)	5,195.75 (17.5%)	10,391.5 (35%)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 건립 (예수병원 인근)	2017~ 2021 (5년)	• 부지 1,156㎡ • 건축연면적 2,758.25㎡ • 전시실, 영상관 등	8,000	2,400 (30%)	1,400 (17.5%)	1,400 (17.5%)	2,800 (35%)

44) 전북의회를 통해 취합한 전북 14개 시군의 종교문화유산 활용 사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됨. 이 자료 이외의 내용은 전북도청 누리집, 신문기사, 기타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을 활용해 정리함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규모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불교세계평화 명상센터 건립 (서고사 일원)	2017~ 2021 (5년)	• 부지 80,696㎡ • 건축연면적 3,358㎡ • (1차)명상생활체험관 • (2차)교육복합관 • (3차)평화명상파크	10,000	3,000 (30%) *기금	1,750 (17.5%)	1,750 (17.5%)	3,500 (35%)
선운사 불교체험관 건립 (선운사 경내)	2018~ 2021 (4년)	• 부지 3,582㎡ • 건축연면적 1,024㎡ • (1차)선체험관, 다도실 • (2차)수장고, 전시실	5,000	2,000 (40%) *균특	375 (8%)	2,125 (43%)	500 (10%)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교촌리 222-5일원)	2018~ 2020 (3년)	• 부지 2,619㎡ • 건축연면적 1,077.03㎡ • 전시관 및 체험관 등	3,000	900 (30%)	630 (21%)	1,470 (49%)	-



〈그림 37〉 고창유교문화체험관
(출처: 주간해피데이)



〈그림 38〉 천주교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출처: 가톨릭신문)

❑ 종교의 역사 기념과 관광의 관계

- 군산 선교역사박물관과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은 종교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지역민뿐만 아니라 군산과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방문공간을 제공할 수 있지만, 관점에 따라서 다른 의미의 해석도 가능함

- 2022년 개관한 기독교 근대역사 기념관은 "복음의 숭고한 정신을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계기"(전북기독교성지화사업추진협의회 이사장 원팔연 목사)로 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종교적 의미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짐. 관광은 기념관의 설립 목적이기보다는 결과로서 이해할 수도 있음[45)]

- 군산 선교역사박물관은 선교역사 기념도 중요하지만, 군산의 근대문화유산 거리와 더불

45)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개관" (기독신문 2022.10.14.)

어 중요한 문화관광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음.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군산 선교역사관은 군산 개항기를 비롯해 근대기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친 선교역사를 기념하는 사업이며....개항 초기 선교역사 재조명과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생동감 있는 역사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함[46]

- 시의원과 목사의 관점의 차이는 종교를 관광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 자원으로 보는지, 신앙으로서 종교 그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과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까지 건립되면 전주가 종교 관광의 성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함[47]

❑ 체험과 문화공간으로서 종교문화시설의 역할

-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천주교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 선운사 불교체험관, 고창 유교문화체험관은 천주교, 불교, 유교를 대중적으로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종교문화공간으로 기능함

- 2022년 3월 개관한 선운사 불교체험관은 기존에 선운사를 찾던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문화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함. 특히 선운사에서는 템플스테이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불교체험관의 건립으로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종교문화시설은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도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제공함. 고창 유교문화체험관은 2022년에 유치원반과 성인반으로 나누어 상반기와 하반기의 교육생을 모집함. 주요 교육 내용은 성인 대상으로는 서예, 판소리, 민요, 고창 선비의 인문학, 고창 전통건축문화, 명륜대학원이며, 유치원반은 전통예절, 생활예절, 다례법 등을 배움

- 종교문화시설은 종교라는 독특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유의미한 문화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큼. 또한 기존에 이미 관광지로 유명할 경우 추가적인 종교문화시설의 건립은 관광 활성화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게 됨

- 전북에서는 종교문화시설이 특정 종교의 신앙의 공간일뿐만 아니라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새로운 종교관광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46) “군산시의회 행복위, 군산선교역사관 건립 현장 등 방문” (프레시안 2022.8.16.)
47) “전주 치명자산 성지에 천주교 ‘세계평화의 전당’ 16일 개관” (한국일보 2021.10.15.)

나. 이웃종교 탐방길(아름다운 순례길) 정비사업

❑ 추진현황 및 탐방길 코스

○ 2012년 시군과 종단이 의견을 모아 시군이 4:6 예산 매칭을 통해 조성.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에서 2019년부터 길과 안내판을 꾸준히 정비해옴

〈표 24〉 시군별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 추진 내역

사업연도	사업내용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2019	길정비	사리부설, 제초작업, 벌목(40,000㎡)	제초작업 노면정리 (5,061㎡)	제초, 벌목(3.6㎞)	제초(16,800㎡)
	안내표지판	16개	56개	15개	5개
2020	길정비	노면정리 제초작업 (17,210㎡)	-	제초작업(712㎡) 야자매트(300m) 목계단(22개)	제초작업(9.2㎞)
	안내표지판	60개	47개	52개	3개
2022 (추진중)	길정비	사리부설 제초작업 23,700㎡	사리부설 222㎥	제초(5km) 잡관목제초(50주)	제초작업 19km (상·하반기)
	안내표지판	66개	-	15개	5개 (신설1, 보수4)

○ 이웃종교 탐방길 코스는 총 10개로 구성됨. 천주교, 원불교, 불교, 기독교 등과 같은 다양한 종교가 함께 코스에 포함됨. 코스는 총 260km의 길이로 구성됨

〈표 25〉 이웃종교 탐방길 코스 현황

- **1코스(26.1㎞) : 풍남문→송광사 (약 7시간)**
  풍남문→전동성당→원불교교동교당→한벽루→승암사→치명자묘지→정여립생가터→월암마을→상관저수지→대흥마을→신촌마을→화심교→벚꽃터널→송광사
- **2코스(27.1㎞) : 송광사→천호성지 (약 8시간)**
  송광사→오성마을→오스갤러리→오도재→오덕사→오덕저수지→독촉골교→고산→고산천변길→어우삼거리→삼우초등학교→럭키강업→민들레동산→명곡마을→천호성지
- **3코스(25.5㎞) 천호성지→나바위성당 (약 8시간)**
  천호성지→문드러미재→이병기생가→여산향교→여산교당→여산장터→여산숲정이 두여교→여산생태하천변→→신풍교→선리교→관산마을→채운마을→무형교회→망성농협→화산교→나바위성당
- **4코스(23.6㎞) 나바위성당→미륵사지 (약 8시간)**
  나바위성당→기차길옆→수로길→용성교→금강지류→교향교→연화교→함열→용기교→구평교→중리교→성남교→죽청교→미륵산자연학교→석불사→태봉사→미륵정사→미륵사지

- **5코스(29.3㎞) : 미륵사지→초남이성지 (약 8시간)**
  미륵사지→미륵초교→백제무왕길→익산토성→주왕마을→삼정원→연동마을→구기마을→덕기교→창평교→옥룡교→천서마을→덕실→춘포→갈대밭길→만경강세월교→마산교→득룡교→논두렁흙길→초남이성지
- **6코스(25.9㎞) : 초남이성지→금산사 (약 8시간)**
  초남이성지→실개천→콩쥐팥쥐마을→원앙재육교→산림연구소→둔산마을→신동교→금구→금구교당→금구초등학교→영천마을→구성산둘레길→귀신사→백운동→연리지→금산사
- **7코스(14.5㎞) : 금산사→수류성당 (약 4시간)**
  금산사→견훤성터→금산교회→대순진리회→정여립활동지→금평저수지→원평교당→원평성당→원평교회→원평장터→주평교회→황골→화율초등학교→수류성당
- **8코스(21.2㎞) : 수류성당→모악산 (약 6시간)**
  수류성당→율치마을돌담길→밤티재→원안덕→안덕저수지→청정인성수련원→장파한지마을→힐링마을→안덕공동체→모악산숲속길→편백나무오솔길→반월→은빛사랑요양병원→창암이삼만묘소→전주예술중고→구이중앙교회→전북도립미술관→모악산
- **9코스(27.5㎞) : 모악산→한옥마을 (약 8시간)**
  모악산→두방마을 전통숲→반월→천변산책길→원당교→신평교→삼천교→세내교→효자동교회→우림교→전북도청→마전교→우진문화공간→신흥학교→예수병원→서문교회→한옥마을
- **10코스(40㎞) : 화심→화심**
  화심→만덕산초지→대산종사탄생가→삼계석문→마이산도립공원(금당사,은수사)→마이돈테마파크→진안성당→원연장꽃잔디마을→천주교한들공소→메타세콰이어길→화심

❑ 복합적인 종교자원을 활용한 관광의 의의와 제약

○ 서로 다른 종교를 함께 연계해 순례길 코스를 개발한 사례로 종교 간의 화합 차원에서 의미가 있음. 순례자들에게도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 함. 전라북도는 이러한 유의미한 자원을 바탕으로 축제로 확장하려는 시도도 한 바 있음

○ 전라북도는 2012년 세계순례대회 조직위를 출범해 이웃종교 탐방길을 중심으로 한 세계순례대회 개최 준비에 착수함.[48] 2012년 처음으로 개최된 전북세계순례대회는 2014년까지 이어져 전문가와 함께 하는 기획순례, 도보순례, 순례포럼 등으로 구성되었음.[49] 그러나 2014년 이후에 전북세계순례대회는 개최되지 않았음

○ 2014년 마지막 전북세계순례대회에서 불교가 순례대회 개선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48) "전북도, 세계순례대회 조직위 출범 "4대 종단 잇는다"" (머니투데이 2012.5.7.)
49) "2014 전북세계순례대회" (전북일보 2014.10.6.)

않자 2015년부터 불참을 결정함. 당시 전북 불교계는 “특정종교 성지화 등 종교편향 행사”라고 비판한 바 있음.[50] 이웃종교 탐방길 조성은 종교 간의 화합에서 조성 의미를 찾아볼 수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전북세계순례대회에서는 화합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드러남

- 전북세계순례대회는 2015년부터 세계종교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여전히 유의미함[51]
- 전라북도가 2013년에 개발해 서비스했던 ‘아름다운순례길’ 앱은 ‘2013년 대한민국 GoodApp 인증 평가’에서 자치단체 부문의 대상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검색되지 않아 존재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52] 당시 앱은 코스 소개를 포함해 인근의 음식점, 숙박, 화장실, 교통정보 등 방문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현재 코스와 관련된 정보는 전북도청 누리집의 전북 토탈관광의 도보여행 소개 코너에서 확인 가능함. 그렇지만, 코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별도의 누리집 창이 열리지 않아 구체적인 장소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

다. 템플스테이 운영

❑ 운영 현황

- 2022년 10월 기준으로 7개 시군 9개의 사찰에서 651명을 수용할 수 있는 111실의 규모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음

〈표 26〉 템플스테이 운영 현황

시군명	사찰명	소재지	수용규모
남원시	귀정사	남원시 산동면 대상2길 246	9실/48명
	실상사	남원시 산내면 입석길 94-129	10실/44명
김제시	금산사	김제시 금산면 모악15길 1	26실/84명
완주군	송광사	완주군 소양면 송광수만로 255-16	6실/104명
진안군	금당사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람로 217	6실/40명
무주군	안국사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1050	13실/116명
고창군	선운사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19실/96명
부안군	내소사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16실/62명
	개암사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	6실/57명

50) “전북불교계 세계순례대회 불참 결의” (BTN 뉴스, 2013.10.15.)
51) 김진형, 2021, “종교문화콘텐츠의 전형과 인류가치적 계승방안: 전북 세계종교문화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61: 45-69.
52) 앱과 관련된 내용은 “전북도, 아름다운 순례길 앱 ‘GOOD’” (전라매일, 2013.12.18.)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부안군의 개암사, 남원시의 귀정사와 실상사를 제외한 6개 사찰이 자부담과 함께 국비, 도비, 시군비의 지원을 받아 템플스테이를 운영함. 운영에는 총 13,950백만원이 소요됨

〈표 27〉 템플스테이 예산지원 내역

연도	시군명	사찰명	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015	완주군	송광사	1,000	400	200	200	200
2016	김제시	금산사	3,325	1,500	750	750	325
2017	고창군	선운사	3,375	1,500	750	750	375
2018	무주군	안국사	1,750	1,000	250	250	250
2019	부안군	내소사	1,575	700	350	350	175
2019	김제시	금산사	1,350	600	300	300	150
2021	고창군	선운사	1,575	700	350	350	175
6개소			13,950	6,400	2,950	2,950	1,650



〈그림 39〉 완주 송광사

(출처: 완주군 누리집)



〈그림 40〉 김제 금산사

(출처: 김제시 누리집)



〈그림 41〉 부안 내소사

(출처: 내소사 누리집)



〈그림 42〉 고창 선운사

(출처: 선운사누리집)

❑ 종교문화유산 관광으로서 템플스테이의 중요성

- 템플스테이는 전북도청 누리집의 전북 토탈관광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소개되고 있음. “전통의 숨결이 살아 있는 산사, 새로운 문화체험 템플스테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템플스테이는 “자연과의 조화”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깊은 체험을 맛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강조됨

- 전북도청 누리집에 소개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53]

〈표 28〉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시군	사찰명	프로그램	기간	인원
남원시	귀정사	-		
	실상사	• 교입문, 불교사상사	8월 1일~6일 (5박 6일)	20명
		• 불교엽문, 불교사상사(재가 불자 여름 학림)	8월 8~13일 (5박 6일)	20명
김제시	금산사	• “한국사찰에 깃든 전통문화와 불교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 사찰예절 습의, 입재식, 마음 나누기, 예불, 108배, 참선, 반야심경 사경, 발원문 작성 • 다도 및 차발울력, 야생차 만들기, 스님과의 대화, 108염주 꿰기, 나는 쉬고 싶다 등	8월 1일~21일 기간 중 2박 3일	80명
완주군	송광사	“송광사 템플스테이는 큰스님과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고, 큰부처님 앞에서 108배 하며 큰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 법고시연, 한지만들기, 탁본, 인경, 발우공양 및 연등 만들기, 경전, 108염주만들기 및 108배, 참선 및 사경, 떡매체험, 전통놀이 등	8월 5~7일 (2박 3일)	50명
		• 타종체험, 낙조트래킹, 108배, 참선, 염주만들기, 도솔암포행, 차담 등(체험템플스테이) • 명상수련회: 명상, 참선, 차담, 법문 등(수련형)	8월 12일 ~10월 13일 (1박 2일)	40명
진안군	금당사	-		
무주군	안국사	-		
고창군	선운사	“나와 남이 하나,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부처님의 연기사상에 입각하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 예불, 차담(일반 휴식형)	매월	100명
		• 타종체험, 낙조트래킹, 108배, 참선, 염주만들기, 도솔암포행, 차담 등(체험템플스테이) • 명상수련회: 명상, 참선, 차담, 법문 등(수련형)	8월 5일 ~10월 23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10~15명

53) 전라북도 누리집의 템플스테이 정보는 도의회를 통해 취합한 자료의 템플스테이 운영현황인 7개 시군 9개 사찰과 차이가 있음. 누리집에는 6개 시군 7개 사찰의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차이 발생. 익산시 숭림사의 템플스테이 운영 기간이 2012년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누리집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큼

시군	사찰명	프로그램	기간	인원
부안군	내소사	"좌선하여 선의 세계에 몰입하기도 하고 담백한 음식으로 발우공양을 합니다. 스님과 차를 마시며 세상사는 이야기도 나눕니다. 바다와 호수가 좌우에 펼쳐지는 능가산 능선을 따라 트레킹을 즐기며 대자연을 감상합니다. 그 자연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속삭이는지 귀 기울여 봅시다." • 예불, 포행, 108참회, 내변산 트레킹, 차담 • 산내암자순례, 참선, 염주만들기 등	연중(1박 2일, 2박 3일 코스)	80명
	개암사	• 1일차: 사찰안내 및 예절교육, 우금 산성 포행, 저녁 공양 및 휴식, 저녁예불, 마음 나누기, 차 명상 • 2일차: 새벽예불, 108배 명상 녹차 밭 포행, 찻잎 따기, 아침공양, 전차 만들기, 스님과의 차담, 방사정리, 점심공양 후 하산	1~12월(1박 2일) (휴식형, 수행형)	매주 10~20명
익산시	숭림사	"산중사찰이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이며, 교통편이나 지리적 주변여건이 템플스테이를 하기에 적합합니다. 또 호수를 끼고 있는 문화센터, 입점리 고분군, 미륵사지 석탑, 곰개나루터, 골프장, 3부자 고택지, 황토방 등 주변 문화와 연계하여 살아있는 문화 체험장입니다."		
		• 여름캠프(인성교육 및 한문교실, 산사체험 예절)	8월 5~7일 (2박 3일)	50명
		• 전통불교문화체험(기본프로그램 및 둘레길, 공개나루터 탐방)	8월 20~21일 (1박 2일)	40명
		• 중국 유학생(원광대) 산사체험	8월 27~28일 (1박 2일)	40명
		• 전통 불교 문화체험(기본프로그램 외 황토방 찜질체험)	9월 17~18일 (1박 2일)	40명
		• 다문화 가정 초청 전통 불교 문화체험(음식만들기, 친목도모)	9월 24~25일 (1박 2일)	30명
		• 전통불교문화체험(기본 프로그램 외 특성 프로그램 운영)	10월 8~9일 (1박 2일)	40명
		• 전통불교문화체험(기본 프로그램 외 특성프로그램 운영)	8월 8~13일 (5박 6일)	40명
		• 전통불교문화체험(동지 팥죽 나누기)	12월 17~18일 (1박 2일)	30명
		• 해넘이 축제(곰개나루) 및 해맞이(소원발원) 체험	12월 31일~ 1월 1일	40명

- 전라북도 누리집의 정보를 통해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불교를 종교이자 한국의 전통문화로 인식: 김제시 금산사, 완주군 송광사
  - 명상을 통한 치유, 내면을 바라보는 프로그램 제시: 완주군 송광사, 고창군 선운사
  - 사찰 인근의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과의 연계 강조: 부안군 내소사, 익산시 숭림사
- 매월 또는 연중으로 모집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은 8월 중에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특징이 나타남. 여름 휴가철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템플스테이가 휴식, 종교, 전통문화, 인근의 자연 등과 같은 여러 자원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문화관광 상품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음

라. 시군별 종교문화유산 관련 사업

❑ 2022년 기준 9개 지자체에서 총 29개 사업 수행

- 종교별 사업은 중복을 포함해 기독교 4개, 천주교 4개, 불교 10개, 유교 17개, 원불교 3개로 나타남. 유교와 관련된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불교, 천주교, 원불교가 차례로 그 뒤를 이음

- 순창군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전라북도는 6개로 그 뒤를 이음. 진안(4), 전주(3), 정읍(3), 김제(2), 익산(1)의 순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음. 순창에서는 유교 사업이 5개, 불교 사업이 2개, 기독교 사업이 1개로 나타남

- 유교가 많은 이유는 향교 프로그램, 제례, 윤리문화 교육, 유림 지도자 역량강화 등과 같이 향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종교문화유산 관련 사업에 포함되었기 때문임. 또한, 유교에는 전통놀이 체험, 전문지도자 양성교육, 전통문화시연도 포함되어 다른 종교보다 포괄적인 특성을 보임

- 사업 중에는 종교단체가 주관하지만 종교적인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순창군의 민관군경 어울림 한마당은 순창사암연합회가 주관하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의 내용은 군인, 경찰, 사회복무요원 등의 체육활동(배구, 족구)과 장기자랑으로 구성되어 불교와 무관함[54]

- 전주시의 전주연꽃문화축제도 전통 문화축제를 연구하는 (사)우리문화연구원(이사장 금산사 주지 일원스님)이 덕진공원에서 개최했지만, “연꽃은 불교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꽃이고 덕진공원은 연꽃으로 유명한 곳이다”라는 이사장의 발언을 제외하면 프로그램은 불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음[55]

  - 노래 부르기, 무료 점심, 전주시 생활문화예술인 공연, 가야금병창, 국악한마당, 고고장구식 전공연, 떡나눔, 판소리공연, 연합합창단 합창, 민요공연, 연꽃가요제, 체험부스 운영

  - 체험부스에서는 컵연등만들기, 염주만들기와 같이 불교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나 전통놀이와 전통공예의 비중이 높음

- 순창군의 문화나들이 체험도 기독교로 되어 있지만, 사업내용은 문화선진지 견학을 통한 문화향유 확대로 종교문화유산과 무관할 가능성이 높음

54) “순창군, 민관군경 문화 어울림 한마당 열어” (전북일보, 2018.11.29.)
55) “2022 전주 연꽃 문화축제 열려” (불교신문, 2022.7.22.)

〈표 29〉 종교문화유산 관련 사업 현황

시군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종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도 (6)	세계종교문화축제	450	120	165	165		• 세계종교문화축제지원사업-명상포럼, 명상걷기, 종교특별기획 등 (전주·익산·김제·완주)	기독교 천주교 불 교 원불교
	치유순례프로그램	480	240	72	168		• 종교문화여행 프로그램운영 1일코스, 1박2일 코스 등 (전주·익산·김제)	기독교 천주교 불 교 원불교
	향교일요학교운영지원	227		91	136		• 인성교육,예절교육 등 (14개 시·군)	유 교
	제례실행사업비 지원사업	260		130	130		• 제례를 통한 조상 숭모사상의 전통문화 체험·계승발전 (14개 시·군)	유 교
	올바른 윤리문화 교육지원	33		30		3	• 동양인문학 지도자양성, 유교지도자 교육 등	유 교
	유림지도자 역량강화	20		20			• 우수향교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	유 교
전주시 (3)	뮤지컬 상설공연	70		35	35		• 뮤지컬 〈님이시여사랑이시여〉	천주교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	25			20	5	• 연등 설치를 통한 희망의 메시지 전달	불 교
	전주연꽃문화축제	39		14	20	5	• 전통문화 체험마당, 연꽃사진 촬영대회, 합창제, 가요제 등	불 교
익산시 (1)	4대종교 합창제	25			25		• 4대종교 연합 합창제 실시	기독교 천주교 불 교 원불교
정읍시 (3)	향교전통문화시연	6			6		• 향교 3개소 지원 (정읍, 태인, 고부)	유 교
	고부향교 유도학교	12.3			12.3		• 유도사상 및 사상교육	유 교
	정읍향교사진촬영대회	13.5			13.5		• 정읍향교 사진촬영대회	유 교
김제시 (2)	향교유림 전통문화사업(기로연)	14			14		• 유교사상 계승 경로위안 풍류잔치 (70세이상)	유 교
	전통문화 연등축제	8.1			8.1		• 영산작법 체험, 108배 체험 연등만들기 체험 등	불 교
진안군 (4)	서원사우 제례비 지원	15			15		• 서원·사우 15개소 • 향사실행비 개소당 1백만원 지원	유 교
	용담향교 대성전	6			6		• 문화재 안전진단을 위한 계측측량 2회	유 교
	진안향교 대성전	6			6		• 문화재 안전진단을 위한 계측측량 2회	유 교
	이산묘 제례실행비	5			5		• 이산묘(사우) 제례실행 지원	유 교
순창군 (8)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	15		6	9		• 전통놀이의 재현 및 현대화 체험 진행	유 교

시군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종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전통놀이전문지도사 양성교육	10		3	7		• 전통놀이 전문지도사 2급 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유 교
	전통예절학교 운영	12			10	2	• 유림 및 여성 유도회원, 충효사상 선양과 윤리·도덕 정신 함양, 예절·한문 교육	유 교
	석전대제 봉행	5			4	1	• 춘·추기 석전대제 봉행	유 교
	전통문화시연 거행	3.3			2.6	0.7	• 전통문화시연 행사 진행	유 교
	문화나들이 체험	24			20	4	• 문화선진지 견학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기독교
	템플스테이 및 인문학 강좌	9.9			9	0.9	• 고전 인문학 강좌,명상지도	불 교
	민관군경 어울림 한마당	5.5			5	0.5	• 사회복무요원 등에게 순창의 역사, 문화 소개하는 자리 마련	불 교
고창군 (1)	선운문화제	70			35	35	• 수륙무치평등대재, 산사음악회등	불 교
부안군 (1)	내소사 가을 산사음악회	18			18		• 군민 및 관램객들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불 교
계		1,887.6	360	566	904.5	57.1		

- 시업예산은 시군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도비가 뒤를 이음. 국비는 세계종교문화축제와 치유순례프로그램을 제외하면 투입된 기록이 보이지 않음. 전북의 종교문화유산 활용 사업이 대부분 지자체 차원의 예산 투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종교문화유산 관련 사업은 대부분 관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그렇지만 유교에 해당하는 향교 사업의 경우 향교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기초적인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순창군의 석전대제 봉행, 진안군의 이산묘 제례실행비, 진안향교와 용담향교 대성전 계측측량, 서원사우 제례비 지원, 김제시의 향토유림 전통문화사업(기로연), 전라북도의 유림지도자 역량강화, 제례실행사업비 지원사업 등이 그 사례임

❑ 세계종교문화축제: 4대 종교의 화합, 명상, 치유의 장

- 세계종교문화축제는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의 상생, 화합, 평화를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세계종교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함. 2014년까지 개최되었던 전북세계순례대회에서 세계종교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함

- 전라북도는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를 통해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운

영할 세계종교평화협의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명시함.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세계종교문화축제조직위원회를 겸하여 축제를 추진하고 있음

○ 세계종교문화축제는 해마다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주교가 돌아가면서 담당 종단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최소 2일, 최대 5일 동안 개최되어 옴. 담당 종단이 될 경우 축제의 실행조직과 함께 협력하여 축제의 개최와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2015년부터 2019년의 세계종교문화축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56)]

- ① 4대 종단의 종교적 화합을 목표로 한 축제적 만남
- ② 4대 종단 중 하나의 종단이 담당하는 축제 실행
- ③ 4대 종단별 기념일을 별도로 설정
- ④ 축제적 시공간 안에서 4대 종단별로 분절된 내용의 콘텐츠 실현
- ⑤ 전북 일대의 종교성지 순례
- ⑥ 열림→공존→닫힘의 축제구조

○ 2022년 세계종교문화축제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주 전라감영지 일원에서 개최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제: 종교, 자연과 인류의 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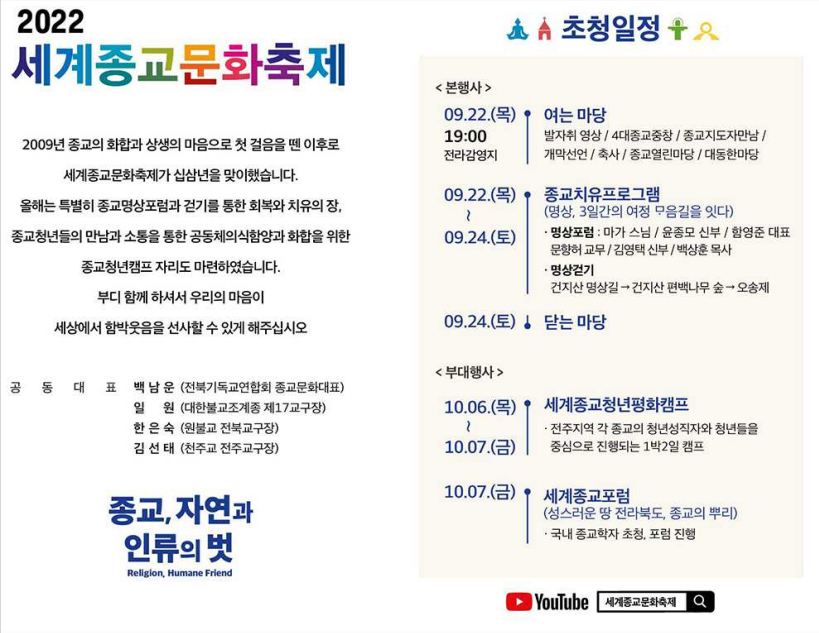
- 종교치유프로그램(명상, 3일간의 여정 마음길을 잇다): 명상포럼 및 명상 걷기(건지산 명상길→건지산 편백나무 숲→오송제)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세계종교문화축제를 구성함. 명상포럼은 “내 인생의 꽃을 피우자!”, “종교와 심리학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명상과 치유”, “나의 우울증을 치유한 마음피트니스, 명상”, “종교음식 체험(사찰음식)”, “건지산 걷기명상 환경 퍼포먼스”, “종교인 토크쇼”, “대중과의 대화, 즉문즉답”으로 이루어짐

- 부대행사로 세계종교청년평화캠프(각 종교의 청년성직자 및 청년 중심의 1박 2일 캠프)와 세계종교포럼(성스러운 땅 전라북도, 종교의 뿌리)이 10월 6~7일 사이에 열림

- 세계종교청년평화캠프: 2022.10.6.~7. 그랜드힐스턴호텔 및 전라북도 일대. 주제 발제 및 토론(기조발제: 평화와 종교/주제대화: 청년종교인들의 활동소개 및 미래의 역할), 평화재즈파티, 각 종단 성지투어(신흥고 100주년 기념관, 금산사, 초남이성지, 원불교성적지)

- 세계종교포럼: 2022.10.7. 전주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전당. “천주교 순교자 묘에서 꿈꾸다: 하늘과 땅을 잇는 세계의 중심, 초남이성지”, “비를 비는 사람들: 전라북도의 기우문화”, “구타원 이공주와 원불교 초기교단사: 전북, 거대한 뿌리가 되다”, “구원의 공간: 미륵을 품은 금산사”, “오래된 미래: 남장로교 한국선교회의 전주 여성교육”,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 익산 동련교회 이야기”가 발표됨

56) 김진형, 2021, “종교문화콘텐츠의 전형과 인류가치적 계승방안: 전북 세계종교문화축제 사례를 중심으로.”『인문콘텐츠』61: 45-69. 세계종교문화의 특징은 58쪽의 내용을 전재함



〈그림 43〉 2022 세계종교문화축제 개요
(출처: 세계종교평화협의회 누리집(http://wrcf.or.kr/))

❑ 치유순례프로그램: 전주, 익산, 김제의 종교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공모에 전주, 익산, 김제가 선정됨

- 전주: 당일, 1박 2일 코스로 종교 치유순례길 사업 구상, 종교인과 함께 비종교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2022년 11월 운영 대행 용역 공모 중 ~ 12월 10일까지 사업 완료 예정

- 익산: '버리고, 비우고, 채우는 다이로운 익산여행'. 원광대학교 양·한방병원의 건강프로그램과 함께 운영하는 치유와 건강 중심의 성지순례 프로그램. 2022년 8월 운영

- 김제: 수류금산 프로그램(당일, 1박 2일 코스), 금산면의 4개 종교 문화재(금산사, 금산교회, 수류성당, 증산법종교본부) 연계 순례 프로그램. 2022년 9~10월 사이 운영



〈그림 44〉 김제 종교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출처: 모악산 치유순례길 수류금산 누리집)

- 수류금산 온라인 스탬프 투어로 금산사, 금산교회, 증산법종교, 수류성당, 원평 집강소를 방문하고 스탬프를 받으면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 진행
- 종교문화해설사 양성교육도 진행: “금산교회의 역사와 인물”, “모악산과 한국의 종교문화”, “금산사의 역사”, “현장해설”, “한국 천주교와 수류성당”의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짐

○ 치유순례프로그램은 전라북도가 이미 보유 중인 풍부한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계속 시도 가능한 공모사업임

❑ 양적으로 성장한 향교와 서원 활용 사업

○ 향교와 서원은 유교문화의 공간으로서 지방정부에서 전통문화로 인식하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종교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접합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종종 나타나서 템플스테이의 운영에 이러한 인식이 투영되기도 함

○ 전북은 향교와 서원의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경북, 경기, 경남/전남/충남 다음으로 많이 받고 있음. 2020년에는 11건, 2021년에는 13건의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음. 지원 금액으로는 충남, 경북, 전남, 경남 다음으로 많음

〈표 30〉 향교 및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국비 지원 현황(2020-2021)

행정구역	2020		2021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서울	1	33	1	37
부산	-	-	-	-
대구	3	92	3	89
광주	2	84	3	128
대전	2	36	2	40
인천	1	35	2	58
울산	2	75	2	102
세종	2	115	2	54
경기	14	439	13	400
강원	9	435	9	353
충북	6	348	6	286
충남	13	835	15	1,027
전북	11	452	13	465
전남	13	607	13	706
경북	18	776	16	661
경남	13	507	13	514
제주	3	176	3	148
합계	113	5,045	116	5,068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0&tblId=DT_150002_A043)

- 향교 방문객 프로그램은 전라북도의 향교일요학교운영지원, 올바른 윤리문화 교육지원, 정읍시의 향교전통문화시연, 고부향교 유도학교, 순창군의 전통예절학교 운영이 있음
-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방교육기관으로서 향교 고유의 역할을 계승하면서도 유교의 정신을 유지하고 확산하는 데 중요함. 교육프로그램은 체험도 포함하여 지역민뿐만 아니라 향교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도 유교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됨

❑ 축제 자원으로서 종교문화유산 활용 방식

- 세계종교문화축제 이외에도 특정 종단의 기념행사가 대중을 위한 축제로 확장되기도 함. 그 사례로 불교의 연꽃과의 연관성에서 기획된 전주시의 전주시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 전주연꽃문화제, 김제시의 전통문화 연등축제가 있음



〈그림 45〉 전주 연등문화축제
(출처: 모악산 금산사 누리집)

- 이와 같은 축제는 불교와 관련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대 행사에서 불교와의 연관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 연등 자체가 불교를 상징하는 압도적인 이미지여서 부대 행사에서 불교적 특색만을 강조하지 않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2022년 전주시의 연등문화축제에서도 문화행사는 종교적 특성을 드러내는 영산작법 시연과 아트풍선 장엄등, 컵등 만들기 이외에 난타와 사물놀이 공연, 인경과 탁본체험, 드립커피, 지화만들기, 비빔밥과 떡볶이 먹거리 장터 운영 등 시민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체험 활동이 이루어짐

- 축제 자원으로서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할 때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종교의 대중화를 꾀한다고 볼 수 있음

❑ 종교문화유산과 공연: 뮤지컬, 합창, 음악회

- 익산시에서는 2022년 11월 10일 세계종교문화축제와 같이 4대 종교의 화합을 위한 4대종교 한마음 합창제를 개최함. 천주교 익산지구 연합성가대, 기독교 드림&그레이스 합창단, 불교 가릉빈가, 원불교 원음합창단이 함께 공연에 참여함
- 전주시에서 지원한 천주교 뮤지컬 상설공연 〈님이시여 사랑이시여〉는 천주교 박해의 역사를 돌아보는 작품으로 1997년 처음으로 공개한 국악 뮤지컬임
- 고창군의 선운문화제와 부안군의 내소사 가을 산사음악회와 같이 불교 문화유산을 활용한 음악회가 종종 개최됨. 선운사는 2021년에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달빛음악회도 개최한 바 있음. 음악회는 종교문화유산을 주요 배경으로 사물놀이, 민요 등과 같은 전통음악뿐만 아니라 마술, 클래식 연주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함
- 선운문화제는 음악회뿐만 아니라 불교 의례가 주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종교적 의미를 기리면서도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음
- 뮤지컬, 합창, 음악회와 같은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종교문화유산의 결합은 종교인과 비종교인 모두에게 종교를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됨. 또한 이 과정에서 종교문화유산이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그림 46〉 전통산사문화재활용 '달빛음악회'



〈그림 47〉 2019년 선운문화제 부도헌다례

(출처: 선운사 누리집)

Ⅳ 종교 문화유산 활용 관광 활성화 방안

1. 정책 방향 설정

1.1 정책 환경 분석과 전략 설정

가. SWOT 분석

❑ 강점(Strength)

- 전북은 풍부한 종교문화자원 및 종교문화 체험시설 보유
  - 전북에는 유교, 불교, 천주교, 기독교, 동학·천도교, 민족종교 등 풍부하고 다양한 종교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있음. 지정된 문화재만 해도 불교 322개, 천주교 13개, 천도교(동학) 9개, 기독교 3개, 원불교 2개
  - 세계종교협의회의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인물, 사건, 유산 등 유형별 종교문화유산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333개에 이름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3개의 자원 중 2개는 종교유산임. 불교유산인 왕궁리5층석탑, 유교유산인 무성서원
  - 전라북도 소재 전통사찰은 118개소로 경북(178개소)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 전국 사찰의 12.19%
  - 명상과 체험 중심의 종교문화시설이 시군 곳곳에 건립되어 있거나, 곧 완공을 앞둔 시설이 8개에 이름(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고창 선운사불교체험관, 전주 불교세계평화명상센터, 전주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전주 천주교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이 건립됨. 진안 전통문화체험관, 익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군산 선교역사관 등)
-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운영 및 13년째 추진되는 세계종교문화축제(전 전북세계순례대회)
  - 종교의 상생, 화합, 평화를 도모하며 2009년부터 전북세계순례대회를 추진, 2015년부터는 세계종교문화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4대 종단(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의 협업 속에 종교화합의 장이 전북 일원에서 펼쳐지고 있음
  -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설립운영 및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협의회가 축제조직위를 맡아 제도적·인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교축제의 노하우를 축적한 상태
  - 세계종교평화협의회는 4대 종단(천주교,기독교,불교,원불교) 관계자들이 종교 간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함

❑ 약점(Weakness)

○ 전북에 선정된 웰니스 관광지 적어

-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는 웰니스관광지 선정사업을 추진. 2022년 기준 총 58개소 선정. 이 가운데 전북은 진안 홍삼스파, 구이 안덕마을, 무주 태권도 상징지구 세 곳밖에 지정되어 있지 않음

○ 전북에 산재한 종교문화유산 홍보·마케팅 미흡

- 전북 곳곳에 다양한 종교문화유산이 산재하고 이를 활용한 종교관광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종교문화유산 및 관련 콘텐츠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홍보·마케팅 전략을 개발·강화해야 함

○ 종교관광에 관한 제도 등 체계화 미흡

- 전북 도내 종교문화유산의 보호, 관리, 관광 진흥을 담은 조례는 단 3건에 그침. 세계종교문화행사 추진을 위한 조례는 오로지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설립 운영 및 지원조례〉가 유일하며, 나머지는 지역문화진흥에 종교자원을 활용하는 정도만 표기함(〈진안군 고원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 종교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종교유산의 관광자원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시스템을 구비해야 함 (광양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 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서천군 「종교 문화유적 발굴 및 성지조성 관리에 관한 조례」 참조)

❑ 기회(Opportunities)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회복과 치유를 향한 '웰니스' 관광 확산

-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행복, 몸과 마음의 회복과 치유를 추구하고 있음. 코로나 시기 치유·웰니스 테마여행캠페인 'Pause in Korea'를 진행하여 웹사이트 방문자 25만명, 소비자도달량 8만건 이상을 달성[57)]

-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만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삶의 질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힐링과 행복을 찾는 웰니스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임.

- 익스피디아 조사에 의하면 10명 가운데 9명이 웰니스 여행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답변(익스피디아, 2017). 웰니스 관광시장 규모는 매년 6.5%씩 빠르게 성장(세계웰니스협회)

○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관광 관련 정책 확산

-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정책에 따르면, 전통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57) 문화체육관광부. 2021.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적 활용을 위해 종교문화활동지원/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종교문화시설건립 등에 약 60,510백만원을 책정함

- 문화체육관광부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종교 및 순례관광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1에 웰니스관광 정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음(예. 지역웰니스관광자원개발지원추진 및 융복합클러스터조성,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 종교유산의 관광자원화를 향한 기초 지자체 의지 뚜렷

- 전라북도내 시·군 관광계획을 검토한 결과 종교문화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예. 순창의 철학종교도서관, 익산의 종교음식 활용 축제, 김제의 안심힐링 관광자원화, 전주 종교문화 뉴딜프로젝트, 완주의 천호성지 관광명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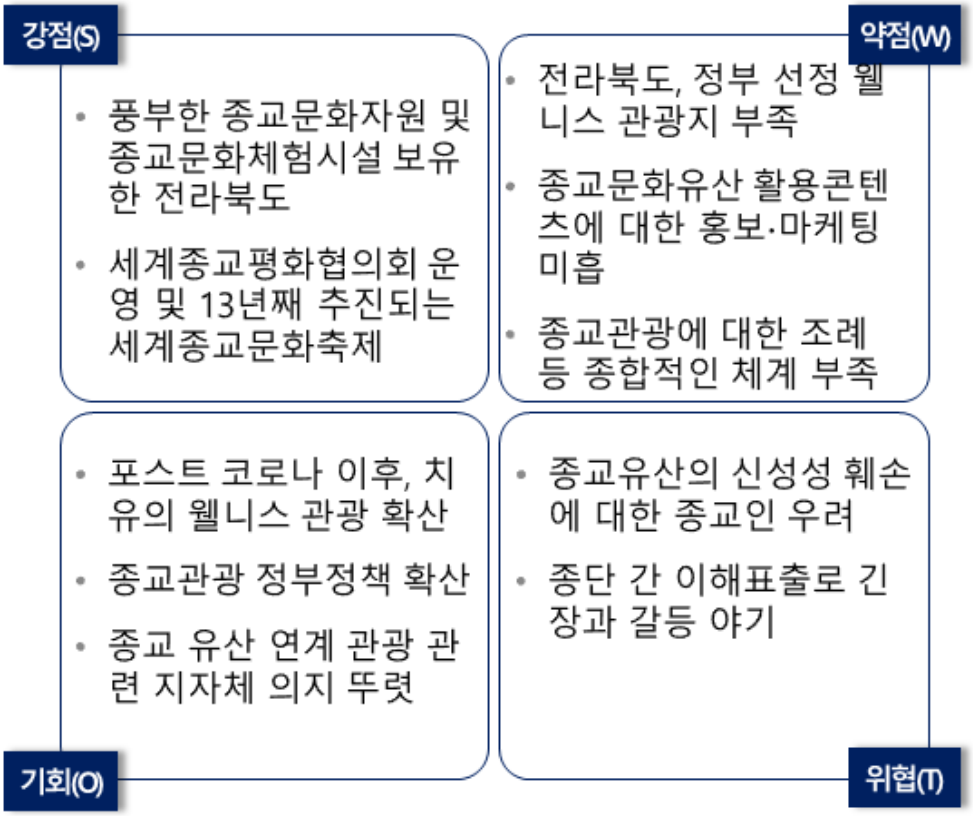
❑ 위협(Threats)

○ 종교유산의 신성성 훼손에 대한 종교인의 우려

- 종단에서는 종교문화유산을 종교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불특정 대중을 대상으로 한 종교유산의 관광자원화가 자칫 종교유산의 신성한 가치를 훼손할 거라는 우려가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정책의 하나로 치유순례 프로젝트를 추진, 여러 지역에서 신청을 하여 진행되었으나 몇몇 지역은 실패. 순례길에 대한 종교인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음.

○ 종단 간 이해의 표출로 긴장과 갈등 야기

- 전북에 산재하는 종교유산은 종교별로 그 숫자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관광자원 개발이 특정 종교에 편중되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음
- 2012년부터 개최된 전북세계순례대회가 2015년부터 중단된 이유는 전북 불교계가 순례대회를 '특정종교를 성지화하는 종교편향 행사'로 주장하면서 불교 영역에서 소외·배제된다고 판단, 순례대회 불참을 선언하였기 때문
- 종단별 보유 유산의 숫자는 격차가 있을 수 있으나, 종교간 편중성이 크지 않도록 정교하고 면멸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등 없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종교 간 문화유산 콘텐츠의 무리한 기계적 통합보다 개별 종교 중심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튼실하게 다진 후 이를 기반으로 한 화학적 통합 및 연계 콘텐츠를 개발해야 함



〈그림 48〉 전북 종교문화유산 활용 정책 환경 여건 분석

나. 활성화 전략 방향

❑ 방향 1. 종교유산의 가치를 드높이는 관광정책 수립

- 종단에서는 종교문화유산을 통해 종교적 차원의 의미를 강조하는 경향이 높지만,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기 위한 대중적인 접근도 동시에 시도하고 있음. 관광은 그 과정에서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이 특정 종교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됨
- 지방정부는 종교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종단에게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종교문화유산의 관광자원으로서 중요성은 여러 종교가 어우러진 전라북도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정부는 종교관련 시설 건립과 이웃종교 탐방로 정비사업과 같은 기반 인프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 수행의 기반을 다지고 있음. 향후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사업 기획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최하는 4대 종교가 어우러진 세계종교문화축제와 같은 사업에서 서로 다른 종교와 지방정부 사이의 협업이 관광자원화 과정에서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음. 2014년까지 개최되었던 전북순례자대회는 불교계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 나아가 종단 간 갈등의 여지를 보여준 사례임
- 종교 인프라와 종교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단과 지방정부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체와 긴밀한 관계 유지가 필수적임. 이 과정에서 종교 본연의 가치와 의미가 관광이라는 대중화의 통로를 통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접근이 요구됨

❑ 방향 2. 종교간 차등 정책을 지양하고, 종교간 화학적 연계 정책 지향

- 전라북도에서 개최되고 있는 세계종교문화축제는 종교간 화합과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종교별 차등 없는 관광자원 개발을 해야 함. 종단별로 보유하고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유사한 비율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함
- 2022년 시군별 종교문화유산 활용 사업 중 유교가 17개, 불교 10개, 천주교 4개, 기독교 4개, 원불교 3개로 차이가 있었음. 물론, 전북에 위치한 향교와 사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 수에 있어서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기존의 종교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접근도 필요하지만, 종교문화자원

을 발굴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라북도의 종교문화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전북의 주요 종교인 6대 종교(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를 모두 포함하여 다종교를 자원으로 한 관광자원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함
- 종교간 이해와 화합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무리한 연계정책은 종교간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초창기에는 개별종교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점차 종교간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는 연계사업을 시행함.
- 종교 간 연계 정책으로는 각 종교의 형식을 강요하는 기계적 프로그램 배치를 지양하고, 명상, 치유, 순례여행 중심의 대중적 기반의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과 조례 및 홍보·마케팅 등 제도 기반에 초점을 둠

❑ 방향 3. 자연경관 및 문화콘텐츠의 접목

- 종교문화유산의 대부분은 주변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음. 이러한 자연경관과 연계해 인프라를 조성하고 방문객들의 명상과 치유를 위한 종합적인 경관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함
  - 이러한 접근은 종교문화유산을 개별적인 자원으로 인지하는 것을 넘어, 인근의 생태적 환경과 결합해 상승효과를 내기 위한 것임. 이는 관광객에게 종교문화유산을 총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
- 자연경관을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종교관광은 명상과 치유 프로그램임. 2022년에 문체부의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길 사업에 전주, 익산, 김제가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함.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활용한 국비 지원을 통해 치유가 접목된 종교문화유산 관광 프로그램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함
- 템플스테이는 이미 명상과 치유에 특화된 종교문화유산 관광이지만 사찰별로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깃으로 하는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세부 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함
- 유교와 불교는 종종 전통문화와 동일하게 인식되어 전통으로서 종교문화유산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음. 방문객들은 종교를 한국의 전통이라는 틀로 이해함으로써 장벽 없이 종교문화유산을 향유하기도 함
  - 템플스테이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조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몇몇 사찰의 경우 사찰의 활동

을 전통문화와 밀접하게 연계해 설명함. 유교는 전통놀이, 전통예절, 도덕관 등과 연계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자 함

- 뮤지컬, 합창, 음악회 등과 같이 종교문화유산과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비종교인도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 이로써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종교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기에 이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의 장르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함. 건립된 종교문화시설에서 흥미로운 전시를 기획하거나 관광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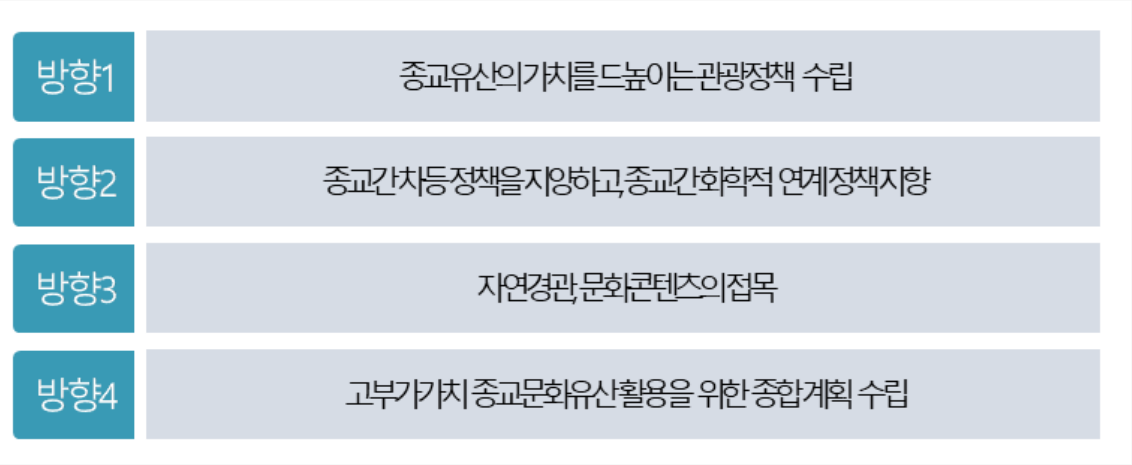
❑ 방향 4. 고부가가치 종교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 MZ세대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소비', '내가 원하는 것'에는 아끼지 않는 소비 성향이 강화되고 있음.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 종교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숙박, 음식, 체험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상품 개발
  - 종교문화자원(종교문화유산)을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추진
  - (핵심 관광자원) 종교문화자원 유형자원 + 정신 수양, 호흡, 운동 등 무형자원의 결합
  - (연계 관광자원) 로컬푸드 음식(먹고), 숙박(자고), 경험(체험) 등 지역관광 활성화의 주요한 축으로 성장

- 종교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단계적 발전 정책이 필요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단계별 육성 정책이 필요
  - 하드웨어: 종교관광 거점과 공간, 관련 인프라 정비
  - 소프트웨어: 종교관광 콘텐츠(스토리텔링,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 상품화, 브랜드, 홍보·마케팅, 정보 제공
  - 휴먼웨어: 관계자 인식 및 역량·참여 의지, 관련 전문인력, 추진조직, 네트워크 및 협의체

- 활용 가능한(잠재력이 있는) 종교문화자원 조사, 콘텐츠 발굴·육성, 상품화, 전문인력 육성, 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마케팅 등 종합적·단계적 추진
  - 숨겨진 종교관광 명소 발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피정의 집 등 종교자원 가운데 주변 자연자원, 지역관광자원 등을 고려해 활용 가능한 종교문화자원 발굴. 다만 해당 종교문화자원 관계자의 참여의지 확인 필수
  - 콘텐츠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관광두레PD 등 지역관광 기획자가 종교문화자원 특성과 지역의 유무형 자원 등을 엮어 콘텐츠 기획·육성

- 상품화 지원: 종교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콘텐츠 육성과 함께 추진해 주민여행사, 지역여행사 등이 콘텐츠를 상품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
- 전문인력 양성: 요가, 명상, 기 수련 등의 프로그램 전문가를 비롯해 디톡스 및 약채 음식 전문가, 종교자원 해설사, 기획자 등 종교관광 상품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아카데미 운영
- 관계자 협력 네트워크: 지자체(행정), 종교 관계자, 지역주민, 관련 관광시설 및 기업 등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종교관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 기반 마련
- 홍보·마케팅: 전북 종교관광에 대한 정보 제공, 전북 종교관광 브랜드 개발, 공모전, 이벤트 개최 등



〈그림 49〉 전북 종교문화유산 활용 관광활성화 전략 방향

1.2 전라북도 종교 관광 비전 체계

가. 비전과 목표

❑ 비전

-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교의 성지이자, 다양한 종교 자원이 문화유산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으며, 종교 자원과 연계한 생태자원이 풍부함
- 현대사회 전반적으로 마음·영혼의 회복과 치유, 스트레스 해소, 활력 추구 등 웰니스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웰니스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주요 트렌드 중 하나로 부상함
- 대표하는 종교 성지 지역이자, 종교 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 경쟁력이 높은 전라북도에 시군별, 종교별 성지를 조성하고, 종교인을 비롯하여 일반인의 종교여행을 진흥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대한민국 종교여행의 핵심 지역이 되도록 노력함
- 따라서 전라북도 종교 문화유산 연계 관광 활성화 방안의 비전을 “대한민국 종교여행의 중심 전라북도”로 설정함. 여기에서 말하는 종교여행은 종교인을 비롯하여 일반 여행객을 포함하며, 종교별 주요 성지와 관련한 직접적인 사업과 더불어 종교 문화유산을 연계한 여행(관광) 사업을 포함함

비전		대한민국 종교여행의 중심, 전라북도
키워드	종교여행	• 특정 종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전라북도 주요 종교인 6대 종교(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를 포함함 • 종교인을 비롯하여, 종교 문화유산을 체험하거나, 종교 문화유산을 연계하는 여행을 희망하는 일반인까지 포함함 • 특정 종교별 성지에 대한 여행사업과 더불어, 각 종교의 문화유산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여행사업을 포함함 •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여행과 종교와 연계된 웰니스 관광을 포함함
	중 심	• 종교여행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의미하며, 이 상징성을 관광으로 연계하는 브랜드 전략의 일환임 • 6대 종교의 중심이 아니라, 6대 종교를 활용한 종교 여행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함 •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되는 전라북도만의 종교 문화유산의 특징(예: 대한민국 최초 순교자, 종교 발원지 등)을 강조함

❑ 목표

- 첫 번째 목표는 '종교별 성지순례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임
- 비전에서 설명했듯이, 이 계획에는 6대 종교가 포함됨, 따라서 각 종교의 유산을 활용하여 종교별 성지 여행의 대표적인 지역이 전라북도임을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 종교의 성지순례객이 방문하는 대표 지역으로 전라북도를 발전시킴
  - 이 목표는 종교 유산 및 각 종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됨
- 두 번째 목표는 '종교적 치유여행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것임
- 전라북도 종교여행의 대표적인 키워드로 '치유'를 설정하고, 전라북도 내 종교 문화유산과 생태자원, 기타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치유(웰니스) 여행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뜻임
  - 이 목표는 특정 종교인이 아니라 일반 여행객과 관련됨

나. 추진전략

❑ (전략 1) 종교 성지화 및 체험기반 조성

- 첫 번째 목표에 맞춰 종교별 성지화와 종교여행의 기반조성을 전략으로 설정함
- 종교별 성지에 대하여 다양한 기반 시설이 갖춰졌으나, 새롭게 발견된 성지와 아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성지 또는 주요 유산에 대하여 기반 조성사업이 필요함
- 종교별 성지에 대한 여행은 1차적으로 관련 종교인이 타겟이나, 종교별 성지여행에 대하여 순례객과 일반인 관광객을 더하여 전 세계인(외래관광객) 대상 관광목적지로서의 유인력(매력 요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전북의 관광시장 특성(현황)을 고려하되, 종교관광의 1차 타겟, 2차 타겟, 3차 타겟 등 목표 타켓을 설정하고, 1인, 가족, 청소년, 중장년 등 다양한 계층별 프로그램을 개발함
- 종교별, 지역별 균형적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함

❑ (전략 2) 종교 유산 간 연계 관광 진흥

- 두 번째 목표에 맞춰 종교 문화유산 간 연계 관광 진흥을 두 번째 전략으로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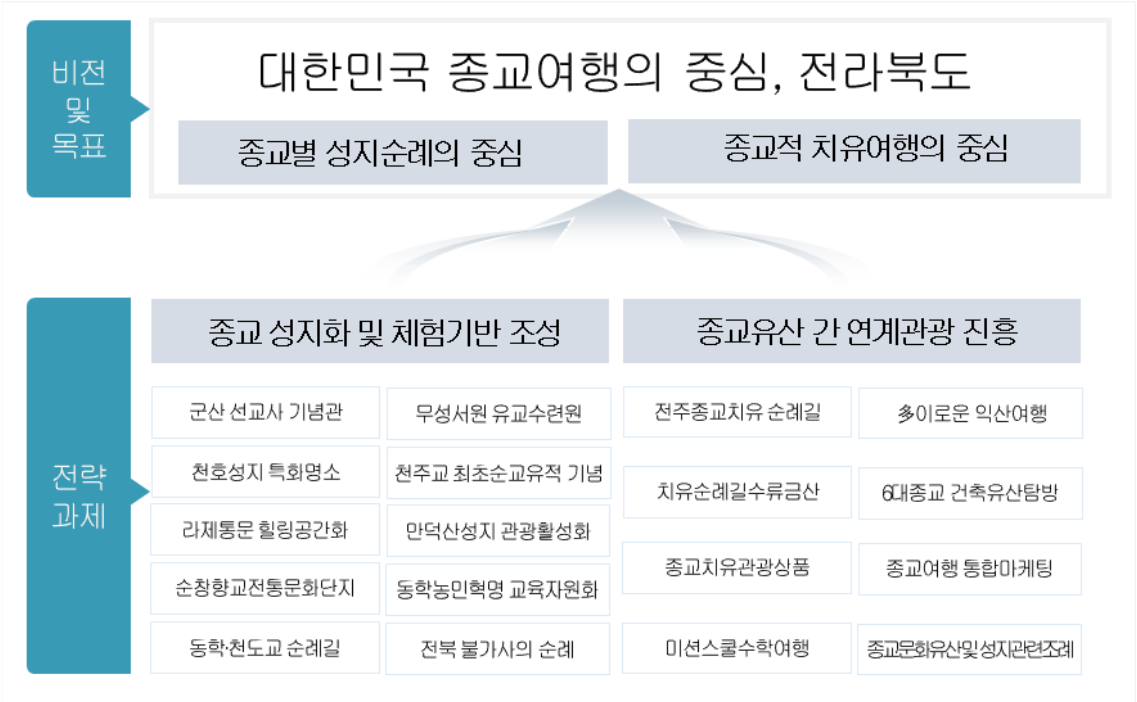
- 지역이 보유한 종교 자원 특성에 맞춰 관광 프로그램과 상품을 개발하되, 문화, 예술, 교육 등 관련 분야로의 확장을 고려함. 예를 들어, 역사적 의미, 수련 등을 특성화하여 청소년 교육관광으로도 확장이 가능함

- 종교인 대상뿐 아니라 종교적 장소, 인물이 주는 치유, 메시지 부각이 필요함. 과거 종교관광이 특정 종교인의 순례 활동에 맞춰져 있었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종교관광은 참여 대상을 일반인까지 폭넓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 치유와 힐링, 안식 등 최근 현대인들이 관광 활동에서 기대하는 바를 종교여행으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함. 종교를 뛰어넘어 휴식과 치유 등 종교가 주는 안식, 깨달음의 가치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심리적 치유, 안정을 비롯해 역사적 장소의 방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음. 종교 관련 인물과 관련한 이야기, 철학적 메시지 등의 전달을 포함함

- 종교문화의 '진정성'을 핵심 요소로 하되, 문화 + 체험(경험) + 치유(힐링) 욕구 결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함. 종교를 떠나 일반인까지 포괄하는 관광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억할 만한 경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을 결합하는 것이 중요함



〈그림 50〉 비전 및 전략과제

2. 종교 문화유산 활용 관광 자원화 방안

2.1 종교 성지화 및 체험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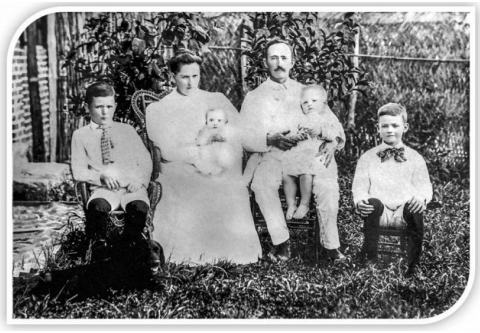
가. 군산 선교역사관 건립 (개신교)

❑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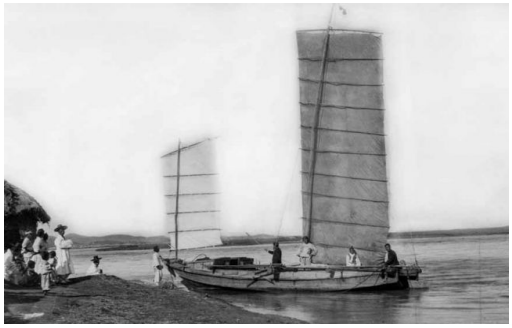
○ 일제 강점기 이전 윌리엄 전킨 선교사(한국명 전위렴)의 헌신과 노력으로 군산에 전해진 기독교 선교역사를 통해서 근대문물과 교육, 의료의 전달 등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선교 역사자원의 종교관광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 윌리엄 전킨 선교사(1865~1908)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출생하여 워싱턴대학과 유니언신학교를 졸업. 미국 남장로교에서 조선 최초로 파송된 선교사로 호남을 처음으로 선교함

- 전킨 선교사는 1895년 호남 최초로 군산 일대에서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움. 그가 세운 교회는 구암교회, 개복교회, 지경교회, 남전교회, 송지동교회 등이며. 또 멜볼딘여학교 *현 영광중, 영광여고), 영명남학교(현 제일중·고등학교), 군산 예수병원 등을 설립함



〈그림 51〉 전킨 선교사 가족



〈그림 52〉 전킨과 함께 활동한 드루 의료선교사가 1896년 구입한 선교선



〈그림 53〉 군산 교회 최초 예배처소로 사용된 전킨의 집



〈그림 54〉 전킨 선교사의 부인 레이번 선교사와 주일학교 여학생반 학생들

자료 :크리스천투데이 (christiantoday.co.kr)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군산시 구암동 274-12 외 23필지 일원
- 사업규모 : 3,821㎡
- 사업기간 : 2022년~2024년(3개년)
- 총사업비 : 10,000백만 원(국비 4,000, 시비 4,000, 기타 2,000)
-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군산시



〈그림 55〉 군산 선교역사관 위치도

❑ 사업내용

- 전킨 선교사 기념관은 군산의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로 가려져 제대로 알리지 못한 역사를 바로잡고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공간으로 조성
- 종교(기독교)적인 색채보다는 교육과 의료, 근대문물의 전달 등 지역친화적인 긍정적 영향을 현시대에 맞게 새롭게 조명
- 공간 구성
  - 1층 : 전시장, 영상실, 초가집 2채 사무실, 드루 선교사 선교선 등
  - 2층 : 세미나실, 카페, 군산 활동 선교사들 자료집 전시 등
  - 3층 : 게스트하우스, 탕비실(지하 : 공조실, 기타 부대시설 등)

나.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유교)

❑ 필요성

- 세계문화유산 정읍 무성서원(2019년 등재)의 주역인 고운 최치원과 불우헌 정극인의 유교사상과 풍류문화를 진흥·교육·체험하는 수련 시설을 조성함

  - 무성서원은 고려시대 지방 유림의 공의로 최치원(崔致遠)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생사당(生祠堂)을 창건하여 태산사(泰山祠)라 하였고, 고려 말 쇠약해졌다가 1483년(성종 14) 정극인(丁克仁)이 세운 향학당(鄕學堂)이 있던 지금의 자리로 이전함. 1968년 12월 19일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무성서원은 2019년 7월 "한국의 서원(Seowon, Korean Neo-Confucian Academies)"이라는 명칭으로 다른 8곳의 서원과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그림 56〉 무성서원



〈그림 57〉 무성서원 내삼문 전면



〈그림 58〉 무성서원 명륜당 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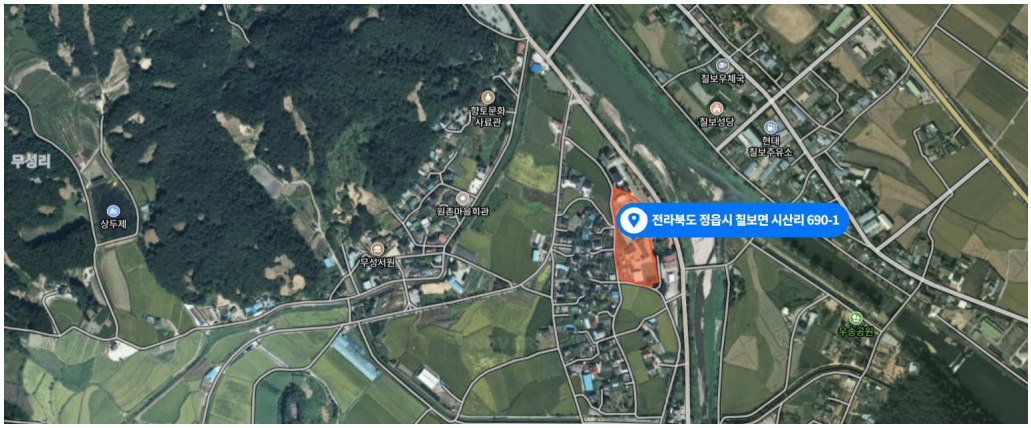


〈그림 59〉 무성서원 명륜당 전면

- 도산서원 선비수련원 등 영남지역에 편중되어있는 유교문화 향유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호남지역의 유교문화 중추 공간으로 활용함

❑ 사업개요

- 위　　치 :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690-1번지 일원
- 면　　적 : 수련동 1동 건립(연면적 1,120㎡, 지상2층 건축면적 690~800㎡)
- 사업기간 : 2023년~2025년(3개년)
- 추진주체 : 정읍시
- 총사업비 : 5,800백만 원(국비 1,750, 도비 1,218, 시비 2,832)



〈그림 60〉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위치도

❑ 사업내용

- 유교수련원 건립
- (주요시설) 유교수련·교육실, 전통문화체험실, 어린이 선비실, 세미나실
- (주요기능) 유교 수련, 풍류(유상곡수연, 산책) 체험, 향음주례(예절) 교육

다. 천호성지 특화관광명소 조성 (천주교)

❑ 필요성

- 천호(天呼)성지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교우촌을 이루고 180여 년 동안 ‘하느님을 부르며’ 살아온 신앙의 터전이며, 숲정이, 여산, 나바위 등 호남 지역의 유명 성지 및 사적지가 소재하고 있어 순례길 체험에 모든 자원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됨
- 천호성지 주변의 종교역사자원과 뛰어난 자원을 문화관광 콘텐츠화하여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의 정신 휴양 특화관광명소로 개발이 요구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완주군 비봉면 천호성지길 124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2026년(3개년)
- 추진주체 : 완주군
- 총사업비 : 10,000백만 원(국비 5,000, 군비 5,000)



〈그림 61〉 천호성지 특화관광명소 위치도

❑ 사업내용

○ 천호성지 경관예술 관광자원화

- Farm Art : 경관작물 활용 대지예술로 경작지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이를 캔버스로 활용하여 종교 주제를 담은 메시지를 표현하여 관광자원화
- Farm Garden : 종교 관련 설치미술작품으로 천 또는 조형물을 활용하여 대지 위에 예술작품을 형상화하고, 이를 대지예술로 경관자원화

○ 천호성지 아트 전망대 설치

- 천호성지 일원 경관 및 Farm Art, Farm Garden 한눈에 볼 수 있는 아트 전망대 설치. 관광객들을 위한 사진 찍기 명소 활용

❑ 사례 : 남양성모성지(화성시)

○ 사업개요

- 위치: 경기도 화성시 남양성지로 112 일원
- 성모 성지란 교회가 공식적으로 성모성지로 선포한 곳을 의미함. 현재 전 세계에 1천 8백여곳이 있는데 그중 성모가 발현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임. 아시아에서는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에 적게는 한 곳에서 많게는 여섯 곳 정도임
- 남양성모성지는 병인(1886년)박해 때 이름 없이 순교하신 순교자들을 현양하는 순교성지이며, 1991년 10월 7일 성모 마리아께 봉헌되고,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처음으로 성모성지로 공식 선포된 곳. 남양성모성지는 야트막한 야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야산에 오솔길을 내고 그 길을 따라 20단 묵주기도 길을 조성해 놓았음



〈그림 62〉 남양성모성지 전경



〈그림 63〉 남양성모성지

라. 근세 종교문화유산 재조명: 천주교 최초 순교유적 (천주교)

❑ 필요성

-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권상연의 유해 발견 장소로 호남지역에 천주교를 전파한 유항검과 한국 최초 동정부부의 생가터 등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큰 현장이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음

> • 2021년 3월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169-65번지에 소재한 일명 바우배기 묘소에서 한국 천주교 최초의 순교자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복자 권상연 야고보, 그리고 복자 윤지헌 프란치스코와 신원미상의 유해가 발견됨. 윤지충과 권상연은 신해박해(1791년) 때, 윤지헌은 신유박해(1801) 때 순교했음. 이에 천주교 측은 유해 정밀감식 과정을 거친 후 교회법원을 통해 이들 유해의 주인이 각각 복자 권상연, 복자 윤지충, 복자 윤지헌이라고 선포한 바 있음(전북일보 2022.2.21.)

- 천주교 최초 순교자 유해 및 유물은 신해박해(진산사건), 신유박해 관련 직접적인 자료이며, 조선후기 사회·문화·지역성 복원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음

- 초남이 성지는 전라도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중심지로서 의미가 있음. 특히 초남이 성지와 바우배기가 품고 있는 정신적 유산은 천주교 신앙인에게 주는 가치를 넘어 인류가 함께 이뤄가야 할 가치를 담은 보편적 정신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님

❑ 사업개요

- 위　　치 :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2030년(8년)
- 추진주체 : 완주군
- 총사업비 : 30,000백만 원(국비 15,000, 군비 3,000, 군비 12,000)



〈그림 64〉 천주교 최초 순교유적지

❑ 사업내용

○ 초남이성지 문화재 가치 역사재조명 및 지정

- 위치 : 초남이성지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초남신기길 122-1)

★ 순교자 무덤 터 (이서면 남계리 169-65)

- 소유/관리자 : 전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대표 : 김선태 사도 요한 주교)

- 구성 : 순교자 묘지 터(남계리 유적), 유항검 생가터(파가저택(破家豬宅)) 등

- 주요내용 : 윤지충·권상연(한국 최초 순교자) · 윤지헌 유해 및 백자사발지석 발견

○ 초남이성지 문화재 지정 향후 계획

- 출토유물(백자사발) 소유권 판정 보완자료 제출(완주군 → 문화재청) : 2022. 7.

- '완주 남계리유적' 도지정문화재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 : 2022. 8. ~ 9.

- '완주 남계리유적' 도지정문화재(기념물) 지정 추진 : 2022. 9. ~ 12.

- '완주 남계리유적' 관련 연구용역 및 정비사업 추진 : 2023년

- 완주 초남이성지 유항검 파가저택 발굴조사(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 2023년

- '완주 남계리유적'사적 지정 추진 : 2024년

★ 학술연구 및 발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도 기념물에서 사적으로 승격 추진

○ 천주교 최초 순교자 기념관 건립

- 역사 체험관 조성교지를 중심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광장을 조성하고 주위에 성직자들의 수도를 위한 공간과 피정센터, 치유공간, 순례길, 종교정원(환경생태 관련 시설) 등

- 순교자 묘지의 추모공간화 및 주변 테마공원 조성

○ 초남이성지 주변 연계 활성화 사업

- 종교 및 순례관광은 문화관광의 한 범주로서 특수목적관광(SIT)이며 종교, 명상(수행), 치유(healing, 마음치유), 성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마음(정신)치유, 정신고양, 자아성찰을 관광을 통해 참여하는 행위

- 초남이성지 인근에는 전주수목원, 콩쥐팥쥐 동화마을, 유명카페 등 우수한 관광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전북혁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므로 순례길 및 일반인의 접근성이 용이함

- 순례길 개발 : 기존 구간과의 연결 및 신규 구간 조성

- 기타 시설 : 진입도로 확포장, 주차장, 안내소 등

❑ 사례 : 솔뫼성지(당진시)

○ 사업개요

- 위치: 충청남도 당진시 우강면 솔뫼로 132 솔뫼성지 일원
- 사적 제 529호로 지정된 솔뫼성지는 '소나무가 뫼를 이루고 있다' 하여 순우리말로 '솔뫼'라 이름 붙여진 곳으로, 한국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탄생한 자리임. 김대건 신부의 증조 아버지 김진후, 작은 할아버지 김종한, 아버지 김제준, 그리고 김대건 신부에 이르기까지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았던 곳으로 '한국의 베들레헴' 이라고 불리기도 함
- 김대건 신부는 이 곳 솔뫼성지에서 1821년 8월 21일 태어나 1836년부터는 마카오에서 사제수업을 받았으며, 1845년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고 조선에 입국, 1846년 9월 16일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하였음
- 국내 제1의 가톨릭 성지로 잘 알려진 이곳은 1984년 5월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한한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로부터 김대건 신부가 대표 성인으로 시성된 후 가톨릭교회의 공경의 대상이 됨에 따라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중요한 문화유적이 되었음
- 2014년에는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 개최지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함. 교황 방문의 감동이 현재까지도 고스란히 남겨져 있음



〈그림 65〉 솔뫼성지

자료 : 솔뫼성지 홈페이지 (http://www.solmoe.or.kr/page_fmPM64)

마. 라제통문 주변 관광힐링공간 조성 (개신교)

❑ 필요성

- 무주 덕유산 국립공원 자락에 위치한 설천 하두마을 일원의 특색있는 자작나무숲과 1900년대 건립된 120년의 역사가 깃든 근대마을교회를 관광 자원화 필요
- 라제통문과 태권도원 일원으로, 구천동33경 및 아름다운길100선을 시작하는 첫 관문에 위치하여 주변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주요 타깃으로 최근 관광트렌드,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무주군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1285-1 일원
- 사업기간 : 2023년(1개년)
- 추진주체 : 무주군
- 총사업비 : 800백만 원(도비 800)



〈그림 66〉 라제통문 주변 관광힐링공간 위치도

❑ 사업내용

- 구천동 33경의 제1경인 설천 라제통문에서 하두마을의 자작나무숲(산책로)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가족단위 관광객 힐링체험 제공
- 구천동 제1경 힐링로드(둘레길) 1.4㎞, 힐링·치유의 숲 정원 980㎡, 소형 유리온실(식물관) 130㎡, 별빛전망대(1개소), 휴게쉼터 및 포토존 조성(2개소), 방향안내판 6개, 기타 편의시설 등

바. 만덕산 성지 관광활성화 사업 (원불교)[58]

❑ 필요성

- 원불교 만덕산 성지(萬德山 聖地)는 원불교 교조 소태산 박중빈(少太山 朴重彬) 대종사가 열었던 초선터 및 원불교 훈련원이 있으며, 대산 김대거 종법사(大山 金大擧 宗法師)의 생가가 인근에 있음
  - 원불교의 5대 성지는 영산성지, 성주성지, 만덕산성지, 익산성지, 변산성지임. 영산성지는 원불교 교조 소태산 박중빈(1891~1943) 대종사가 탄생한 곳. 성주 성지는 제2대 정산 송규(1900~1962) 종법사의 탄생지이고, 만덕산 성지는 제3대 대산 김대거 종법사의 탄생지임
- 만덕산 성지를 중심으로 각종 편익시설과 자연자원을 테마화한 관광시설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555 일원
- 사업기간 : 2024년~2027년(4개년)
- 추진주체 : 진안군, 원불교
- 총사업비 : 10,000백만 원(국비 5,000, 군비 1,000, 기타 4,000)



〈그림 67〉 만덕산 성지 조감도

58) 진안군 · 원불교(2018).「풍혈냉천 및 만덕산성지 활성화 방안」 재구성

❑ 사업내용

○ 좌포탄생가 건립

- 전시관, 세계종교 컨벤션센터, 어린이집/유치원, 유기농 식당, 야외 복합공간, 부대시설 등

★ 靜 좌포탄생 기념 공간, 中 신앙 보조 공간, 動 이웃종교화합/주민복지/기억의 공간을 분리하여 조성. 두 공간을 접근하는 주요 동선도 분리

★ 폐교를 활용하여 세미나와 교육을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운영. 폐교에 인물/종 전시관을 운영하여 원불교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함(미디어 아트 활용)

★ 좌포탄생가 어린이집을 폐교로 이전, 인성교육실을 조성

★ 기존 야생화단지를 활용하여 원불교 특화 경관 및 약용식물/유기농 먹거리 생산

★ 주차장 및 정원, 소규모 야외무대, 야외결혼식, 마을행사장 등의 소규모 야외공간 조성 등

○ 만덕산 성지화 사업

- 국제선(禪)도서관, 분당골 산중법회 도량 본관, 문화복지센터 리모델링, 캠핑장, 명상쉼터 등

★ 精 불당골 도량공간, 中 훈련원/효소선원/선도서관 공간, 動 성수환경 영농조합 여가휴양 공간을 분리하여 조성

★ 초선지에서 부촉의식이 있었던 신앙적 의미와 부처의 산인 만덕산을 영성치유를 주요 테마로 발전시킴

★ 효소선원의 활성화를 위해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동력으로 국제禪도서관을 조성

★ 산림이기 때문에 나무를 무조건 활용하여야 한다는 대산종사님의 뜻에 따라 산림융복합단지를 조성(유기농채소와 표고버섯 임산물 단지, 방갈로30동(3평) 조성)

★ 공간적으로 외부에 위치한 성수환경영농조합법인 공간은 적극적이고 동적인 여가휴양 공간으로 활용. 다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고 유기농비닐하우스에서 쌈채소를 뜯고 황토방 유기농 식당을 빌려 진안 한우 소고기를 먹음. 물놀이를 하고 문화센터에서 목공예나 영화보기 체험을 함. 황토방에서 자거나 도서관, 또는 캠핑장에서 숙박

★ 모든 공간은 도로와 명상산책로, 등산로에 의해 연결함

★ 초선의 맥을 이어 원불교 훈련성지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각종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 체험프로그램(안)

- 타깃층 : 가족단위 방문객 및 원불교신도

- 활동 : 풍혈냉천 → 좌포생가 → 도서관/황토방/캠핑장 → 다실 정육점 → 유기농비닐하우스 → 황토방유기농식당 → 엄마는 효소선원 → 아빠 아이들은 황목련길 산책 → 아이들은 목공예체험/물놀이 → 도서관/황토방/캠핑장 → 좌포생가 → 풍혈냉천

★ 정적인 원불교 신앙공간, 중적인 산림융복합공간, 동적인 성수환경영농법인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계

★ 풍혈냉천-좌포생가-만덕산성지는 하나의 맥락과 네트워크로 프로그램 개발

★ 아빠의 여가 활동을 돕는 효소주 등의 상품개발 필요